

전환기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학문성과 현장성 제고를 위하여 -

이 제 환*

〈 목 차 〉

- | | |
|---------------------|-------------------------|
| 1. 이야기를 시작하며 | 5.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2.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 6. 이야기를 끝내며 |
| 3.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 참고문헌 |
| 4.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의문 | |

1. 이야기를 시작하며

나는 솔직해지고자 한다. 나는 이 글을 통해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가 서로 알면서도 쉬쉬해왔던 한국 문헌정보학의 근본적인 의문들을 건드리고 그 의문들을 公論化함으로써 우리 학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문이 더욱 발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학문적 위기 상황에서 ‘누어서 침을 뱉는 우매한 행동’ 혹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을 태울지도 모르는 무모한 행위’라고 비난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어떤 비난을 들을지라도 나는 이 글에서 철저히 솔직해지고 무모할 정도로 대담해지고자 한다. 나는 오래 전부터 우리 학문의 정체성, 학문성 그리고 실천성에 대한 총체적인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학계와 현장을 막론하고 한국 문헌정보학의 아버지 삼촌 형님 동생들이 모두 모여 앉아 우리가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쟁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생각해 왔다. 그 논쟁을 나는 지금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개진된 나의 의견에 대한 어떠한 충고나 반론에도 나는 기꺼이 대응할 생각이다. 그 누구와도 논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이다.¹⁾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1) 이 글은 철저히 개인적 견해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작성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지나치

2.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얼마 전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 학생에게는 아마도 미국의 도서관은 동화 속의 궁전이었던 모양이었다.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환상은 도서관이라는 물리적 기관에 머물지 않고 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이 학생이 미국의 librarian(사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은 터무니없이 부풀어져 있었다. 그는 미국의 모든 사서는 사회적으로 유능하며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하게 갖추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능력과 품성에 있어서 우수한 사람만이 사서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LIS programs, 즉, 문헌정보대학원 과정)에 입학할 수 있으며, 사서들은 미국사회에서 손꼽히는 엘리트층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아차! 싶었다. 환상을 무지막지하게 깨버리기에겐 그 학생의 눈동자가 너무 맑았기에 그 자리에서 나는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지만, 입안에서는 공허하게 다음과 같은 말이 맴돌고 있었다: “미국사회에서도 司書가 사회적 엘리트로서 대접받는 것은 아니며, 단지, 교사나 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의 대열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의사나 변호사 또는 엔지니어와 같은 전문직종에 비교할 때에 사서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사서직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미국 이야기를 먼저 올리자니 마음이 째째하다. 그러나 어찌하랴, 자식 이야기를 잘하려면 어미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는 것을! 이왕 시작된 이야기이니 눈을 크게 뜨고 좀더 상세히 알아보자. 한국 문헌정보학의 元祖격인 미국의 문헌정보학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놀랍게도 우리가 ‘도서관 천국’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학문적 뿌리(문헌정보학)가 굳건하리라고 믿고 있는 미국사회에서조차 우리의 학문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프로그램이 폐교되는 극

게 주관적일지도 모른다고 의심이 들 때는 先學들 그리고 同僚들의 의견을 구해보기도 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 2) 한국 문헌정보학이 학문의 성립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문헌정보학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학문 1세대로부터 지금의 2세대에 이르기까지 (1세대로부터 교육을 받은 1.5세대들은 물론이고) 연구영역이나 교육영역에서의 철학과 이론은 물론이고 학문의 실천현장에서의 사소한 규정이나 규칙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 문헌정보학에 철저히 의존적이었다. 이와 같은 학문의 ‘식민성’에 관한 논의는 이 글의 4장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의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진다.

단적인 사례에서부터 문헌정보학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을 둘러싼 'L'字 논쟁과 커리큘럼의 개정에 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수백편의 글들을 쏟아 놓는다. 특히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전통적으로 'library school'로 불리던 교육프로그램의 명칭에서 'library'字를 떼어내야만 정보사회로 대변되는 환경의 변화속에서 문헌정보학이 생존할 수 있다고 믿는 개혁파의 주장과 아무리 상황이 변화하여도 문헌정보학의 실천성을 대변하는 'library'字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보수파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³⁾ 1980년대에 'inform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학문의 명칭이 library science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나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로 바뀔 때만해도 지금처럼 논쟁이 뜨겁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제 information字만 남기고 library字를 떼어내 버리자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그 논쟁의 결말이 쉽게 나지 않을 전망이다.⁴⁾ 이와 같은 학문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보느냐'하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이렇듯, 학문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두고 미국 文獻情報학계의 갈등은 그 골이 깊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 문헌정보학계의 일부 학자들이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학문의 명칭에서 전통적인 향수를 의미하는 'library'字를 떼어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을 하게 만들고 있는가?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의 글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어휘는 '사회환경의 변화' 혹은 '정보환경의 변화'이다. 이처럼 이들은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과 도서관이라는 현장을 둘러싼 환경, 특히 정보환경의 변화가 우리

3) 1998년 3월 현재 'Library'자를 그들의 school 명칭에서 떼어낸 학교는 다음의 9개 대학에 이른다: Florida State University, Michigan, Missouri, Syracuse, SUNY at Albany, Drexel, Pittsburgh, Tennessee, and Toronto ("Keeping the Library in Library Education." American Libraries 29(March 1998). p.59-61. 이 논쟁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헌의 목록은 참고문헌을 참조하기 바람.

4) 양쪽 견해의 차이는, Indiana대학의 library school 학장인 Blaise Cronin이 1995년 초 ALISE (Associ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정기총회에서 행하였던 연설의 내용 (...fundamentalism, inertia, resistance to change, fetishism, inbreeding, feminization, censorship... a dispiriting self-critical catalog of what is awry in the LIS field..." 그리고 "...there is pretty solid academic justification for spinning off Librarianship programs from the major research universities and locating them in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과 Cronin의 견해를 반박하면서 Library Journal의 편집장인 John N. Berry III가 1995년 3월 15일자 journal의 권두언에서 쓴 글의 요지 (...it is not the purpose of Librarianship to cure the inferiority complex of LIS programs because they get no academic respect from their ivory-tower colleagues in elitist universities. It is our purpose to support the universities that understand and teach the full scope of knowledge needed in Librarianship, universities that recognize our field as a learned profession")를 보면 명확해 진다.

학문의 '패러다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1978년부터 시작되어 1986년에 정점에 이른 주요 library schools의 폐교 사태⁵⁾를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미시적으로 볼 때, "사서직업시장"의 축소, 문헌정보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의 감소, 문헌정보학 프로그램 사이의 나아가 다른 전문대학원 교육프로그램과의 과다한 경쟁, 그리고 특히 교육프로그램 운영자들의 무능이 폐교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나, 근원적인 원인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모집하는데(recruitment) 실패'한데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이들은 지금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될 때 문헌정보학에 대한 새로운 교육수요가 창출되고 문헌정보학이 '정보사회'로 불리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생존은 물론 번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이들은 믿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 개혁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당위성을 지니며, 이들이 주장하는 당위의 근거는 무엇인가? 앞서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학문과 현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예상롭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사회를 향한 미국사회의 사회적 전이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Peter Drucker나 Daniel Bell이 예견했던 미래사회의 제반적 특성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이들은 특히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 한 사회권력의 이동현상과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사회구성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과학적 지식(theoretical knowledge)과 지적 기술(intellectual technology)이 지식 스펙트럼의 상층부를 점유하면서 학문적 그리고 사회적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과학적 사고와 지식 기술로 무장한 정보전문가(information profession)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이들을 중심으로한 새로운 사회지배계급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들은 긴장 어린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21세기를 코앞에 둔 지금을 '사회적 전이'의 정점기로 보고 있으며, 이 정점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존 질서와 새로운 질서사이의 갈등(system disturbance)과 이 갈등의 와중에서 발생하는 기존 세력간의 세력확장을 위한 영역다툼(jurisdictional disputes)이 우리의 학문(문헌정보학)에 미칠지도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거시적 관점에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개혁파들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지배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소위 정보전문가(information profession)의 그룹에 자신들도 자동적으로 포함될 것으로 믿고 있는 일부 현장사서들의 순진한 사고와, '기록된 지식의 보존과 시간적 전이'라는 고유의 역

5) Columbia대의 library school을 비롯하여 8개의 주요 library schools가 이 기간 문을 닫았다.

할에 충실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사회적 전환기에는 보다 바람직한 생존전략이라면서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문헌정보학도 존속할 것이라고 믿는 일부 문헌정보학자들의 보수적 사고를, 우려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들은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과 직업으로서의 사서직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식과 정보를 매개로한 새로운 사회질서가 형성되어 가고있는 작금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하며, 대처의 적극성에 따라서는 학문과 직업군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도 될 수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특히 사서가 정보전문가 직업군의 핵심그룹으로 지목되는 지식공학자(knowledge engineer)의 대열에 끼어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라도, 사서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 또하나의 핵심그룹인 정보의사(information doctor)⁶⁾의 대열에 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이를 위한 기본 조건을 학문성의 제고를 위한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이라고 이들은 보고 있다.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 키워드는 '탈기관화(deinstitutionalization)'이며, 여기서의 기관은 물론 'library'를 의미한다. F. Lancaster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사서직(librarianship)이 현존하는 직업체계속에서 가장 기관중심적인 직업(the most institutionalized of profession)임을 잘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이 현존하는 학문체계에서 가장 기관중심적인 학문 (the most institutionalized of science)임도 잘 알고 있다. 학문의 명칭에서 library字를 떼어내자는 개혁파들은 'library'字가 갖고 있는 사회적 보수성이 인터넷 시대를 사는 그리고 늘 미래지향적으로 思考하기 마련인 젊고 유능한 학생들을 'library school'로 끌어들이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한다.⁷⁾ 다시 말해, 이들은 현단계 문헌정보학의 패러다임이 교육수요자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적 사고는 무엇인가? 대표적인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Oklahoma 대학 Library school 학장인 J. Lester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그는 말한다 (발언자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번역보다는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6) 지식과 정보의 단순한 gatekeeper나 custodian의 단계를 넘어, 정보와 관련한 고객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prescription)을 내리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responsibility)을 지니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정보서비스 전문직을 일컫는다.

7) Tennessee대학의 library school 학장인 J. Griffiths이 1994년 Library Journal이 주최한 library school 학장들의 토론회에서 행한 다음 발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적절히 대변하고 있다 (여기 원문을 그대로 옮겨 본다): "...we are striving to recruit student of a different type who wouldn't think about enter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rogram *because they have the traditional view of what is all about...*" ("Dean's List: 10 School Heads Debate the Future of Library Education." *Library Journal* April 1994. p.60).

"We need to shift from an institutional focus to a much broader conceptual base, which would prepare people to be information professionals regardless of the application or setting... We need to focus on processes and products and services that help people with information needs, and on the environment in which people have their information needs met... And we need to help our graduates understand the full range of possibilities rather than focusing just in one dimension."⁸⁾

이 말의 요점은 무엇인가? Lester는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적 편협성을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한다. 학문의 폭을 넓혀서 정보의 유통과 관계된 분야라면 어디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사회적 응용성이 보다 큰 연구와 교육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래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도서관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자고 주장한다. 이처럼, 이 짧은 인용문은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적 사고는 탈기관화를 통한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현장성의 제고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3.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우리 문헌정보학계로 옮겨보자. 한국 文獻情報學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망하며 인식하고 있을까? 한국 문헌정보학자들이 학문의 元祖인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중요한 변화를 강 건너 불 보듯 하지는 않았겠지 않는가? 문헌을 조사해 보았더니 역시 많은 자료가 쏟아졌다. 그 쪽에서 논쟁이 있었던 시기에 이 쪽에서도 논의 (비록 논쟁까지는 아닐지라도)는 있었다. 학회 차원에서 연구보고서가 생산되었으며 단행본 형태로 출판된 연구물도 눈에 띄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전환기'에 한국 문헌정보학이 나아가갈 방향성에 대한 제언에서부터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교과과정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그 논의의 폭은 결코 元祖인 미국 문헌정보학계에 뒤지지 않았다.⁹⁾ 대부분의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용어의 공식적인 사용은 자

8) "Keeping the Library in Library Education." *American Libraries* 29(3), p.59.

9) 1980년대 후반이후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교육방향을 논한 연구물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리재철(1990), "문헌정보학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7(2): 3-34; 이순재(1990), "한국 도서관학·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도서관문화* 31(6): 281-292; 고영만(1993), "포스트모던 사회의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포스트모던의 정보학 고찰,"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579-603; 구본영(1993),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문헌정보학논총 리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55-97; 김태승(1993),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34(5): 2; 정동렬(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정영미(1993),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

제하고 있었지만, 한국 문헌정보학계에서도 사회적 전환기에 학문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과 제기’의 흔적은 여러 문헌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논의의 과정과 결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해보자는 의도에서 선행 연구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았다.

선행 연구들을 하나 둘씩 학습하면서 나의 생각은 정리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배경 또는 관심사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태도와 방법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접근태도와 방법에 있어서만 천차만별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내리고 있는 결론 또한 다양하였다. 대부분의 경우, 총체적이라기 보다는 각개적이고 심지어 자의적인 해석과 그에 근거한 처방이 제시되고 있었다. 특히, 가뜩이나 기능 중심의 기존 학문성격에 정보과학(information science)의 기술적 응용성을 보태는 것을 통해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믿는 한국판 개혁파의 단선적 순진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한, 전통적인 도서관학으로 회귀하여 열악한 도서관 현장을 개혁하는데 학문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한국판 보수파의 무모한 용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였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학계의 현재 모습에 철저한 자기 반성과 우리 학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부분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이었다.¹⁰⁾ 철저한 자기 반성과 상황변화에 대

에 대한 내용분석적 연구,” *문헌정보학논총 리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27-54.; 최성진(1993),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81-112; 한국정보관리학회(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관리학회; 남태우·정준민(1995),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193-245; 한국문헌정보학회(1996),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대전: 한국문헌정보학회; 구본영(1996),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김정근·이수상(1996), “도서관사회학 연구시론,”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4): 129-149; 김정근·이수상(1997), “현단계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전략,”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1): 125-151; 박홍석(1997),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및 위치: 이용자 연구 중심의 문헌정보학,” *도서관학논집* 26: 504-538.

1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 문헌정보학의 설립과정과 발전과정을 다각적 시각에서 분석하면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적 성찰을 시도한 한 이수상의 논고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며 매우 가치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의 제시에 있어 한국 문헌정보학을 둘러싼 거시적이며 동시에 미시적인 환경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한 느낌이 있으며 더불어 한국 문헌정보학의 실천현장을 도서관에만 국한하여 논함으로써 우리 학문의 실천성 확대를 위한 고려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주고 있다.

한 고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없이 어떻게 학문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한 처방이 내려질 수 있단 말인가?

또 하나의 결점은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다양한 처방을 놓고 문헌정보학계 차원의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는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데 있었다. 어느 한 연구자나 그룹이 나서서 나름대로 문제를 진단하고 나름대로의 처방을 제시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연구는 종결되었지, 어떤 한 연구의 결과를 놓고 관심있는 학자들이나 혹은 현장사서들 사이에 지속적인 논쟁을 벌여 최종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 낸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¹¹⁾ 이처럼 개인이나 그룹에 의한 문제의 제기과 처방의 제시는 있었지만 지속적인 토론은 없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연구는 일회성으로 그쳤고,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문성과 현장성에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다시 봉합되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學界의 중지를 담은 거학적인 대처방안과 실천전략이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그 결과로, IMF의 경제위기와 학부제와 대학원중심 교육이라는 새로운 환경 변수를 맞이하면서 사회적·학문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문헌정보학계는 다시 허둥대고 있다. 살아남긴 살아남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여전히 공동의 대처방안을 마련하기보다는 소속대학의 심지어는 개개 교수들의 이해 득실에 따라 갈기갈기 찢겨져가고 있는 것이 1998년 6월 현재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모습이다.

4.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한 의문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왜 문헌정보학을 연구하는가? 대학교수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었을 때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나에게 물었다: 교수님께서 왜 문헌정보학을 선택하셨어요?“ 갑작스런 질문에 가슴이 찢리해 왔다. “내가 왜 이 학문을 선택했었지...” 문헌정보학자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화두임에도 갑작스레 눈앞에 등장하니 허둥대기는 학생이나 교수나 마찬가지였다.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그래도 문헌정보학 교수답게(?) 나는 다음과

11) 관련 학계나 협회 차원에서 개최된 모임들, 가령, 1995년 한국도서관협회가 文獻情報學과 도서관의 전근대성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개최한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 같은 해 한국정보관리학회가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을 위해 개최한 학술 세미나, 그리고, 1996년에 한국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가 학부제 실시에 즈음하여 문헌정보학의 진로모색을 위해 개최한 세미나 등에서 한국 문헌정보학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한 여러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회의나 세미나 이후 주제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거학적으로 토론하거나 제시된 방안들에 대한 논쟁 혹은 실천전략의 마련을 위한 후속 모임이 있었다는 증거는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같이 그 학생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문헌정보학이 사회의 심장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이론 그리고 방법은 소위 정보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사회의 심장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여러 현상을 구명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이론의 개발에 있어 문헌정보학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나는 이 학문을 선택하였다.” 사회의 심장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문헌정보학을 선택하였다는 나의 말에 그 학생은 적잖이 감동한 눈치였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즉흥적인 수사도 터무니없는 과장도 아니었다. 나는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5년. 나는 여전히 문헌정보학자로서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론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 과업이 언제 끝을 볼지는 모르지만 일생일대의 과업으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나의 이러한 계획과 의지를 자꾸만 약화시킨다. 무엇보다도 지난 5년 동안 나는 물리학이나 경제학 같은 ‘뿌리 깊은 학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소진하여 왔다. 즉,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고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는 벌써 내가 가진 에너지의 상당부분을 소비해야만 했던 것이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 속에는 “니 하는 학문이 뭐라고 했지”하며 찾아볼 때마다 묻곤 하시는 내 육신의 아버지에서부터 “이선생, 도서관학과 요즘 어때요”하며 만날 때마다 문헌정보학과가 아닌 도서관학과의 근황을 묻곤 하시는 사회과학대학 이웃학과 중견교수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무리를 상대로 나는 내가 지금하고 있는 학문과 일에 대하여 설명해 왔다. 5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반복적으로...

1) 정체성에 대한 의문

나는 지금 한국 문헌정보학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특히 局外者의 눈에 비친 한국 문헌정보학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 우리 학문의 정체성을 아무리 떠들어 보았자 무엇하겠는가? 그러니 먼저 국외자들의 시선에 주목해 보고자 한 것이다. 앞서도 간략히 언급하였지만, 문헌정보학을 바라보는 국외자들의 시선은 짐짓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매우 냉소적이다. 문헌정보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학문의 명칭이 바뀐지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으니 그렇다 치더라도(사실 1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니지만), 문헌정보학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또는 알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국외자들조차도 문헌정보학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인식의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다음의 이야기에 주목하자. 이 이야기는 내가 꾸며낸 소설이 아니다. 우리 학과의 학생들이 인터뷰 나가서 얻어온 결론이며, 학

생들이 제출한 리포트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 대한 묘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캠퍼스에서 불특정 다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하였다. 목적은 몇 퍼센트나 문헌정보학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를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반응하였다: 문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까? 컴퓨터와 관계가 있겠지요? ‘정보’字는 왜 붙어 있지요? 그러면서 다시 물어왔다: 무엇을 배우지요? 졸업생들의 진로는... 한참을 설명해야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돌아서면 다시 가우뚱하였다. 그러다가 설명하는 사람이 오히려 답답하여 ‘예전의 도서관학이예요’하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알겠다는 식으로. 그러나 이제는 다시 도서관학(대개 상대방은 이제부터는 문헌정보학이라는 명칭대신에 도서관학으로 칭하기 시작한다)이 어떠한 기술(?)을 배우는 과정인지 궁금해 하였다. 대학에서 도서관학을 학습해야만 도서관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고개를 가우뚱하였다. 그들의 표정을 가만히 쳐다보면 그 표정은 대부분 냉소적으로 변해있었다. 그리고는 다소 시건방진(?) 말투로 되물곤 하였다: “배울 것이 많아요?”¹²⁾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가? 이 땅의 대학에 문헌정보학과(당시에는 도서관학과)가 설치된지도 40년이 넘었고 1998년 6월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수만도 32개에 이르는 등 학문으로서의 연륜과 외형적 勢가 참담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文獻情報學과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어림잡아 계산을 해 보았더니, 졸업생의 숫자만 1만 5천명을 훨씬 넘고 재학생의 숫자도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여기에 도서관을 비롯하여 문헌정보학과와 관련있는 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非문헌정보학과 출신을 보태보니 적어도 2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文獻情報學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만이면 작은 수가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대학교육을 받은 지식층에 속하는 무리가 아닌가! 이들이 자신이 학습했던 또 하고 있는 학문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으로 충만했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쳐갔다.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선택했던 학문에 대해서 애정도 자부심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학문과 인연을 맺던 초기부터 애정도 자부심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믿고 싶진 않지만 이 참담한 假定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되었다. 문헌정보학과에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입을 통해서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제법 이력이 붙은 사서의 입을 통해서도, 내가 가졌던 불길한 예감이 사실이 되어 나타났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자:

“...입학원서를 써야하는데 가고싶었던 학과는 도무지 점수가 안됐어요. 재수도 생각해 보

12) 개인소장자료.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 모음집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았어요. 그러다가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했어요. 도서관학과의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사실 미리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도서관학과의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을 거예요. ...미팅에 갔어요. 학과소개를 하는데 상대방이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짜증이 나네요. 지금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아요... 학과에 애정을 가지려고 애도 써 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저의 고백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특히 전공수업에 들어가 보고는 전과나 휴학을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저도 놀랐어요.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니, 자기들도 그랬다고 하네요. 자기들은 미련해서 아직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결정은 일찍 내리는 것이 현명하네요..."¹³⁾

“나의 직업은 사서다. 나는 사서다. 그래서 어쩐다는 말인가. 남들이 들어서 그제(사서가) 무슨 말인가 할 것이고 나 자신도 언뜻 사서라는 말을 통해 특별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없다. 책? 자료? 서가에 쌓인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한다... 말해 놓고 나니 내 눈앞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바로 내 등이다. 나는 이 순간 작업대에 엎드려 열심히 목록카드를 정리한 내 뒷모습이 보인다 (거기에 와 박히는 나 아닌 또하나의 시선도 느껴진다)... 나는 필경사란 단어를 떠올린다. 글을 써주는 것이 그의 호구책이다... 누구는 등 푸른 자유가 어찌고 하지만 지금의 나의 등은 시리기만 할뿐이다.”¹⁴⁾

문헌정보학과와 새내기 사서경력 5년이 넘는 ‘일꾼’ 사서의 고백이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처럼 스스로를 卑下하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인생의 여정을 후회하도록 만들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이유를 우리 학문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찾고자 한다. 우리 학문의 학문성과 현장성이 열악한데서 찾고자 하며, 우리 학문을 연구해온 사람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에서 찾고자 한다. 나는 우리 학문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위상정립에 지금까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주된 이유를 학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가 일부는 인문대학에 일부는 사회과학 대학에 일부는 심지어 자연과학대학에 속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¹⁵⁾ 또 동일한 내용의 학문이 일부는 전문대학에서 일부는 4년제 대학

13) 1993년 이후 문헌정보학과 신입생과의 비공식적 간담회에서 매년 듣는 이야기다. 처음에는 주저하다가 분위기를 자유롭게 풀어놓으면 반드시 고백이 시작된다. 물론 도서관이 좋아서 사서가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입학한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내 어깨에 힘이 빠지는 것은 이들 소신과의 숫자가 한 손을 갖고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는 데 있으며, 이들의 소신 시간이 흐를수록 회의로 바뀌어 간다는 데 있다.

14) 조윤희(1994), “나의 공공도서관,” 부산대학교문헌정보학과 창설10주년기념행사 자료모음. p. 21.

15) 물론 문헌정보학이 인문학의 속성과 사회과학적 특성 그리고 자연과학적 요소를 고루 지닌 종합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자들의 학문적 성향 또한 다양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학문의 정체성 확보라는 면에서 볼 때, 동일한 학과가 여러 단과대학으로 흩어져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 학문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에서 또 일부는 '사서교육원'이라는 애매모호한 성격의 기관에서 교육되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어디 학문의 정체성만이 문제가 되겠는가? 학문의 실천현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열악한 것 또한 우리 학문의 위상을 더욱 왜소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학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사회적 응용성과 직업세계의 비전이 더욱 주요한 척도로 부각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우리 학문의 위상 제고에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학문의 주체인 문헌정보학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자신의 학문에 대한 自負心 결여와 劣等意識 그리고 責任感 결여와 利己之心은 우리 학문의 정체성 확보와 위상 제고에 있어 가장 근원적인 장애가 되고있다.¹⁶⁾

2) 학문성에 대한 의문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에 대한 의문은 '한국 문헌정보학은 과연 학문(science)인가'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시작된다. 문헌정보학의 원조인 미국에서도 한때 문헌정보학이 art인지 science인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했음을 고려해 보면, 학문의 실천현장인 도서관이 미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한 우리의 현실에서 '도서관에 대한 학문'으로 인식되어온 문헌정보학이 과연 학문인가 하는 질문은 전혀 어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논의에 앞서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학문의 주체들조차 '한국 문헌정보학이 과연 학문인가'하는 기본적인 물음에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⁷⁾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문헌정보학이 독립 학문으로서의 학문성을 결여하고 있다면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는가? 나는 한국 문헌정보학이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자리매김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던 이유를 앞서 언급하였던 '학문의 정체성 확립 실패'라는 기본적인 이유에 더하여, 과학성의 부족, 규모의 영세성, 지나친 폐쇄성, 그리고

다는 생각이다.

16) "나요. 사실은 법대 지망생이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도서관학을 지망했지요... 미련이요? 왜 없겠어요. 그러나 이 길이 나의 길인지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학년초면 흔히 마주치는 성적에 맞춰서 어쩔 수없이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하였다는 새내기 고백이 아니다. 내가 유학에서 돌아와 이곳 부산대에 자리를 튼 다음, 학계의 원로들에게 인사를 다니던 중에 찾아뵈 한 원로교수의 입에서 뜻하지 않게 흘러나온 참담한 이야기다. 존경스런 많은 先學들도 게셨지만 문헌정보학이 최선의 선택이 아닌 차선 혹은 차차선의 선택이었다는 고백은 의외로 여러 분들의 입에서 나왔다. 이때 이후 나에게는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중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있어 문헌정보학이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이러한 의문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글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선배나 동료학자들에게 크나큰 불경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무례하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감히 언급하는 까닭은, 우리 학문이 이 땅에 뿌리내린지 40년이 넘었음에도 학문성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내외로부터 제기되고 있는데는 당사자인 우리들(문헌정보학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자책에서이다.

17) 남태우·정준민, 앞의 글 & 김정근·이수상 앞의 글.

토착성의 부족에서 찾고자 한다.

(1) 과학성의 부족

문헌정보학이 '기능학'이자 '기관학'이라는 비판은 학문의 元祖인 미국학계에서도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다. 학문이 명칭이 library science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바뀐 후에도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¹⁸⁾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 상황은 한국에서도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서관학에서 문헌정보학으로 학문의 명칭이 바뀐지 10년이 넘었으나 '기능학'이나 '기관학'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인 상태이다. 물론, 1990년대 중반이후 연구의 영역, 대상 그리고 방법에서 여러 변화가 일고 있긴하다. 가령, 한편에서는 정보공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연구물이 쏟아져 문헌정보학의 과학기술적 특성이 강화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도서관 사상과 철학 그리고 글쓰기와 연구 방법의 혁신을 강조하는 연구물들이 생산되어 문헌정보학의 인문학적 특성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학계는 여전히 '문헌정보학은 현장에 기반한 실무적인 응용학문'이라는 고정관념의 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한국 문헌정보학의 과학성을 제고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바탕이 되는 토착적 이론의 개발과 축적은 극히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나는 독립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된 제현상을 구명하고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지식과 정보의 유통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고 도구를 제작하고 업무절차를 규정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학계가 보다 치중해야 할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제현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이론의 개발과 축적은 학문의 과학성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특히 한 분야에서 개발된 이론이 여러 분야에서 두루 이용될 때 그 학문의 과학성은 일반적(universal) 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어떠하였는가? 불행히도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 학계에서 생산되어온 각종 연구물들을 분석해보면, 학문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연구나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론의 생산보다는 임기응변식의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에 너나 할 것 없이 지나치게 몰두해 왔음이 드러난

18) 학문의 명칭이 바뀌었으면 연구의 영역, 대상 그리고 연구방법이 변화하고, 교육현장에서는 교과과정과 교과내용 그리고 교수진이 변화하는 등 <학문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가 따라야하는데, 겉만 바뀌고 속은 변하지 않는 상태가 1980년대 동안 비교적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비로소 정보학의 여러 요소가 강화되면서 (여기서의 정보학적 요소는 단순한 정보공학적 요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정보학적 요소 특히 커뮤니케이션학과 심리학 그리고 정치경제학과 경영학적 요소의 가미를 동시에 의미한다) 교과과정의 전반적인 개혁과 교과내용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전공의 교수진 보강이 뒤따르고 있다.

다. 그 결과, 한국 문헌정보학은 다양한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일반성있는 이론의 개발과 축적을 통한 과학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하였고, 자연히 학문의 시간공적 유용성을 입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학문성 자체를 의심받는 처지로 전락해 가고 있다.

(2) 규모의 영세성

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우리 나라에는 5만3천명이 넘는 대학교수들이 100여종의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¹⁹⁾ 어렵잖아 학문당 평균 500여명의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물론 이 중에는 역사학이나 수학처럼 그 규모가 방대한 분야도 있고, 러시아문학이나 대기과학처럼 그 규모가 아주 영세한 학문도 있다. 우리 문헌정보학은 물론 그 규모에 있어 영세한 쪽에 속한다. 한국문헌정보학과 교수협의회에서 발간한 교수주소록에 의하면, 1997년 9월 현재 우리 나라에는 40개 (전문대학의 8개 학과를 포함하여)의 문헌정보학과에 170명의 현직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다. 우리 학문과 자주 비교대상이 되는 사회복지학에 비교해 보아도 그 규모의 영세성은 드러난다.²⁰⁾ 그러나 관점을 달리 하여 우리 학문의 원조격인 미국의 현실과 비교해 보면, 우리 학계의 규모가 전체 인구에 대한 상대적 비율에서 결코 영세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미국의 경우 ALA에서 인준한 49개의 LIS 프로그램에 약 560여명의 전임교수(full-time)가 재직 중이니,²¹⁾ 40개의 학과에 170명이라는 우리의 규모가 결코 작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학과의 수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든다). 그렇다면 이 글에서 말하는 '규모의 영세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글에서 우리 학문의 영세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첫째는 우리 학문에 있어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의 절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둘째는 이들이 생산해 내는 연구물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연구생산력의 측면에서, 그 셋째는 이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얼마나 집중적인가 하는 연구분야의 전문성의 측면에서 우리 학문의 영세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자의 수에 있어서 (전임교수의 숫자에서 우리의 규모가 미국에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20만명이 넘는 현장사서중에서 많은 수가 다양한 채널

19) 1998년 현재 우리나라 187개 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수는 557개이나 동일한 전공을 다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적인 학문의 종수는 100여종으로 분류된다 (이현중, "대학교육개혁과 학부제", 1998년 5월 27일 부산대학교교수회 정책 심포지엄 자료집 & 학술진흥재단에서 발행한 전공일람표 참조).

20) 사회복지학의 경우 4년제 대학에만 5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임교수의 수는 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21) 비인준학교까지 포함할 경우 73개교에 이룸 (<http://www.ala.org/alaorg/oa/uslis.html>).

을 통하여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반해²²⁾ 우리의 경우 5천명의 현장사서 중에서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숫자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임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의 절대수에 있어서 우리의 영세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다음, 연구생산성의 측면에서 역시 학문의 영세성은 드러난다. 지난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우리 문헌정보학계에서 학술논문의 형태로 생산된 연구물의 총수는 약 700여편에 이르고 있다.²³⁾ 이 통계는 1년 평균 약 25편의 학술논문이 생산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한국 문헌정보학교수 1인당 년평균 연구생산성은 약 0.25편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수 1인당 4년마다 1편의 학술논문을 생산해 냈다는 통계인데 이 수치를 놓고 어찌 우리 학문의 규모와 생산성을 운운할 수 있을까?²⁴⁾ 마지막으로, 700여편의 논문이 얼마나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중간 분류정도의 수준에서 약 20개가 넘는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⁵⁾ 다시 각 주제별로 얼마나 많은 연구논문이 지난 28년 동안 생산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더니, 하나의 주제영역에서 평균 35편의 논문이 생산되어 1년 평균 약 1.3편의 논문이 생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영역당 1년에 1.3편. 이 수치를 앞에 놓고 우리는 과연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주제별로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미약한 연구물을 대상으로하여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연구동향이 어떻게 연구영역이 어떻게 연구방법이 어떻게 하는 논의를 과연 할 수 있는 것일까? 그저 답답할 뿐이다.

이 글에서 나는 우리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물의 질에 대해서는 언급할 생각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학계의 연구행태와 관련한 문제는 학문의 영세성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 연구자에 의해서 이 문제는 지적된 바 있지만,²⁶⁾ 구체적인 물증을 찾아내기 위하여 조사대상 학술지에

22) 나는 현재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현장사서들이 연구 및 저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단, 현재 내가 재직중인 부산대학교에서 소장 중인 문헌정보학 분야의 저널 (가령, Library Journal과 같은 trade journal부터 Library Trend나 JASIS와 같은 scholarly journal을 포함하여) 중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1997년에 출판된 articles의 저자를 분석해 본 결과, 60%가 넘는 articles가 현장사서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23) 1970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동안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그리고 도서관학논집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4) 비교의 대상이 될만한 통계는 아니지만, 1969년부터 1997년까지 문헌정보학 분야의 대표적인 초록인 LISA에 수록된 논문의 수가 18만 4천여 편에 이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 학문의 영세성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확인된다.

25) 圖書館史에서부터 정보검색 그리고 다시 도서관/정보센터 경영론에 이르기까지 우리 분야에서 강의되고 있는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20개의 주제분야를 설정해 보았다.

26) 이수상, 한국 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p. 45-46.

수록된 연구물들을 토대로 우리 문헌정보학자들에게 과연 전문연구영역이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다. 불행히도, 이 조사 결과 역시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硏究가 일회성에 그치고 있었으며, 다루고있는 주제가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잡식성(?) 연구자도 상당수 있었다. 심한 경우는 자료조직 분야의 전공자가 경영이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그러한 논문에서 어찌 전문성을 운운할 수 있겠는가? 전문성조차 결여한 일회성 문제제기가 축적된다고 그 분야에 필요한 자생적 이론이 생성되겠는가? 우리 학계의 별거벗은 현실이며 우리 학문의 영세한 현상이다.

(3) 지나친 폐쇄성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문성을 위협하는 또다른 요인은 학문적 폐쇄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의 학문적 폐쇄성이란 다른 학문분야와의 지적 교류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한 학문의 연구성과가 관련있는 여러 분야에 기여할 수 없을 때, 학문의 폐쇄성은 커지고 궁극적으로 그 학문의 학문성은 의심받게 된다. 우리 학문의 폐쇄성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앞서 수집한 700편의 논문의 참고문헌을 분석하였다. 논문의 생산을 위하여 어느 정도 다른 분야의 문헌을 활용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였다. 결과는 예상대로 였다. 전체 참고문헌 중에서 우리 분야가 아닌 타분야에서 생산된 문헌이 차지하는 비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하였다.²⁷⁾ 타분야에서 우리가 생산해 내는 문헌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를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짐작하건대 그 비율은 우리가 타분야의 문헌을 참고하는 비율보다 결코 높지는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계량적 분석보다도 질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도 모른다. 우연히 우리 분야에서 가장 활발한 저술활동을 펴고있는 한 원로교수의 글을 접하고 그 글에 함축된 내용이 '우리 학문의 폐쇄성에 대한 참담한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일부 인용한다:

"...나는 <창작과 비평>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게 되었다. 내용은 도서관의 제문제와 문헌정보학에 대한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편집자는 <창비> 지령 30년 약 90호를 내는 동안에 도서관문제를 한번도 다루어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연락을 받던 날 나는 매우 기뻐다. <창비>가 어떤 곳인가? 60년대 중반이래 이 나라 인문사회과학계에 있어서 진보적 학술담론을 격조 높게 주도해온 곳이 아닌가? 나는 사뭇 흥분되기도 하였다... <중략>... 나는 이 경험을 계기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 문헌정보학계의 글쓰기 행태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왜 우리는 우리끼리만 글을 써서 발표하는가? 왜 우리는 다른 인문 사회과학

27) 최근 들어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의 논문이 점차 늘면서 타분야의 문헌을 참조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으나, 1990년 이전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그 비율은 3%대로 떨어진다.

자들과 더불어 그들과 같은 무대위에 글을 올려놓지 못하는가...”²⁸⁾

이 원로교수는 지금 우리 문헌정보학자들의 글쓰기 행태를 나무라고 있다. 그러나 그 뜻을 좀더 깊숙히 헤아려 보면 쓰는 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탓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학문이 인문사회과학분야의 타학문에 비해 무엇이 부족해서 다른 인문사회과학자들과 더불어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나는 위 인용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글쓰기 방식에도 중요한 결함이 있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글의 내용이 다른 분야의 학자들과 더불어 공유하기엔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그 관점이 지나치게 폐쇄적이어서 학문의 사교클럽에 초청받지도 가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우리 문헌정보학자 스스로 우리 학문의 폐쇄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4) 토착성의 결여

한국 문헌정보학의 종속성에 대한 논의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제기되었고, 그 처방까지도 논의되었다. 앞서의 700여편의 문헌들을 분석해보아도 우리가 그 동안 얼마나 정보선진국 특히 미국에서 생산된 연구물에 의존적이었는가 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참고문헌이 100% 미국에서 생산된 자료로 채워져 있는 논문의 숫자도 부지기수이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로 그 동안 우리가 미국을 비롯한 정보선진국에서 개발된 이론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지나칠 정도로 길들여져 왔음을 의미한다. 그것도 전체를 대받아 들이는 것도 아니고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신에게 유용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여, 이 땅의 동료나 후학들에게 의존과 편식의 습관을 은연중에 길러왔다는 의심을 들게하는 증거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심지어 번역한 내용을 原典조차 밝히지 않고 마치 자신의 견해이며 주장인양 버젓이 연구논문의 형태로 발표한 비양심적인 사례도 부지기수이다.

이처럼 토착적인 연구물이 절대적으로 희귀하다보니 우리 분야에는 쓸만한 이론서 하나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되었다. 자생적인 이론서의 부족은 곧바로 교재의 절대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 뜻한 바 있어 교과과정을 바꾸고 새로운 내용의 강의를 편성해 놓아도 활용가능한 교재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보니 다시 나라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일이 학기초면 반복된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종속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굳이 학계 원로의 自省의인 고백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동

28) 김정근, “한국문헌정보학의 위상정립과 교수협의회 역할 - 우리학문의 실천성 문제와 관련하여,”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대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996). p. 5-7.

안 지나칠 정도로 해외의존적 행태에 젖어있었다.²⁹⁾ 그나마 1990년대 들어 여러 편의 교재가 개발되면서 양적 성장이 눈에 띄이나, 문제는 그 내용이다. 자생적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였다기보다는 자기만이 알고 있다고 믿는 原典의 내용을 무지막지게 짜깁기하고 번역해 놓다보니, 내용은 유사한데 제목만 다른 교재들이 왜 이다지도 많은지! 우리가 앞장서서 막아야할 ‘정보공해’를 우리 스스로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니, 이 상태에서야 어찌 학문성을 운운하라!

3) 현장성에 대한 의문

졸업시즌이 다가오면 치르는 홍역중에 입사원서 쟁탈전이 있다. 이때가 되면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의 비애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전공을 찾아 취업자리를 알아보자니 도서관사서도 만원이라 사서가 되는 공식 관문은 거의 막혀있고, 용기를 내어 일반 기업체로 눈을 돌리면 입사원서의 배부과정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한다. 입사원서를 받으러 취업설명회에 참석했다가 무안(?)만 당하고 학과로 돌아온 졸업생들은 분노를 삼키며 후배들에게 일갈한다. “야! 전공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공부나 해! 그게 살 길이야!” 상황이 이러하니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문헌정보학에 입문한 새내기들이나 저학년들의 사기는 땅바닥이다. 학기초면 휴학자가 한두명씩 늘어나고, 수업시간마다 전공서적보다는 영어책이나 공무원 시험문제집에 코를 박는 학생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에서건 흔히 목격되는 이와 같은 망국의 풍조는 문헌정보학과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입사원서의 교부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차별을 받고 있는 학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리스트에 우리 문헌정보학과가 올라있다는 것이 우리를 참담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실천 현장이 얼마나 폐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 문헌정보학의 사회적 응용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나아가 직업세계의 비전을 짐작하게 하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문헌정보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뜻을 펼칠 실천의 현장은 도대체 어디인가? 현재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국의 32개 4년제 대학의 요람에는 거의 대부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과 소개 문구가 들어 있다. 즉, “본 학과의 졸업생들은 각종 도서관을 비롯한 기업체나 연구소의 정보자료실, 신문사나 방송사 같은 언론기관의 조사부... 등으로 진출한다.” 과거에 비해 달라진 부분은 ‘정보자료실’이나 ‘조사부’ 같은 전통적인 도서관과는 다른 기관이 첨가되

29) “...너무 오랫동안 남들의 지식을 수입하는데만 급급해온 잘못된 관습을 청산하고, 이 나라에서 절박하게 제기되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하면서 세계 문헌정보학계의 발전에도 적극 기여하는 역사적 전환의 시발점을 마련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우리는 이제 학문의 의존에서 자립으로, 수입에서 생산으로 방향을 바꿀 때가 된 것이다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총, 1993. p. 82).

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실은 '정보자료실'이나 '조사부'도 결국은 특수한 형태의 '전문'도서관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문헌정보학 주체들의 의식에는 여전히 도서관과 같이 정보자료의 관리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관이 문헌정보학의 핵심적인 실천 현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와 같은 기관들이 한국 문헌정보학에서 말하는 여러 이론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천의 現場임은 확실한가?

국립중앙도서관의 관장이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며 내가 소속되어 있는 대학의 도서관장이 문헌정보학 출신이 아니며 근래에 들어 하나둘씩 설립되고 있는 <정보센터>들의 장도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아닌 것은 나도 알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도 아는데, 이들 기관이 문헌정보학의 다양한 이론을 실천하는 현장이라는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지 고민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當事者인 현장사서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서라는 직업을 전문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하다. 그 밑바탕에는 '사서가 아닌 그 누구를 얹혀 놓아도 도서관은 돌아갈 것 같은데 사서직을 어떻게 전문직이라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불신이 깔려있다. 의사가 없다고 해서 간호사에게 수술용 칼을 맞기지 않고, 선생이 자리를 비웠다고 서무직원에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는데, 도서관에서는, 특히 공공도서관에서는 그래도 된다는 인식이 짙다. 그것은 사서가 하는 일 자체가 전문성을 띄지 않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사실 내게 있어서 '사서가 전문직인가'라는 이 문제는 참으로 힘들고 가슴 아픈 일이다.”³⁰⁾

이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서라는 직업의 전문성이 없음을 자탄하는 말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내면에 함축된 의미는 “우리가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운 지식은 여기서는 (도서관에서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는 탄식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당연히 해왔던 '도서관은 문헌정보학 이론의 실험실이다'라는 등식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장면이다. 학문의 철학과 이론을 더 이상 실천해 볼 수 없는 곳이라면 그곳은 現場이 아니라 단순한 '일하는 장소'요 근무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의 도서관은 자의든 타의든 문헌정보학의 실천의 현장이기를 오래 전에 중지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일부 문헌정보학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름길은 우리 도서관 현장의 전근대성을 개혁하는 것이라는 해법을 찾아냈다. 이 신념하에 그들은 뜻이 맞는 현장의 젊은 사서들과 합심하여 도서관 개혁운동(?)을 시작하였다. 교수들은 우리의 도서관 현실에 적합한 연구물이

30) 김순화(1996),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수서업무의 현단계*,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석사학위논문. p. 53.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장개혁에 필요한 연구물을 하나둘씩 생산해냈고, 현장사서들은 사서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법률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갔다. 몇 년 후 그 목소리는 드디어 일차적인 승리를 맛보았다. 이들이 이끌어낸 최대의 승리는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가 전문직인 공공도서관의 관장직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적 개정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과가 문헌정보학의 현장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법률개정의 결과로 사서들이 공공도서관의 관장으로 보임되는 변화는 있었으나, 그후 공공도서관 현장에서 전근대성의 타파를 위한 개혁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어느 곳에서도 들리지 않고 있다 (물론 이제 시작단계이니 차분히 기다려 보아야 하겠지만...). 설상가상으로 새로이 취임한 일부 사서직 관장들에 대한 資質論(?)이 불거지면서 이들에 대한 주위의 시선도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여기서 '주위의 시선'에는 행정직을 비롯한 국외자들은 물론이고 앞으로 십수년동안 이들을 모셔야 하는 도서관운동의 주체였던 젊은 사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원인은? (원인에 대해서는 이 장의 말미에서 논의하도록 하자).

“실천선” 문제에 접한 다른 그룹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해법을 달리 찾으려 노력하였다. 그들은 (앞의 그룹과는 달리) 실천현장의 개선보다는 실천현장의 확대를 통해 문헌정보학의 실천성 문제를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도서관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야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때마침, 정보처리 방법과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가면서, 이들의 접근 방법은 학계와 현장의 호응을 받았다. 특히, 도서관자동화에 관심을 가진 컴퓨터 회사나 문헌 DB의 구축과 유통에 관심을 가진 데이터뱅크들이 문헌정보학과 출신을 하나둘씩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목소리에는 점차 무게가 실려갔다. 자연히, 문헌정보학과와 커리큘럼에서 정보공학적 요소의 비중이 커져갔고, 문헌정보학과 출신이 중심이 된 정보서비스업체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멀리서 볼 때 문헌정보학의 실천현장이 확대되고 있음은 확연하였다. 그러나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 분야에는 타전공 (주로, 컴퓨터학과) 출신의 주인이 이미 있었고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의 역할은 보조적 위치에 머물고 있었다. 대부분의 조직에서 경영인이나 주체적인 전문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보조적인 기능인으로서의 역할이 문헌정보학과 출신에게 주어졌다.

두 번째 그룹의 경우 특히, '실천현장의 확대'라는 기본 전술의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 지나치게 편향된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문의 실천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전략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례는 1990년대 들어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입증된다. 1990년대 들면서 도서관과 정보센터는 전혀 별개의 정보시스

템이라고 믿는 局外者들이 중심이 되어 여러 개의 국가단위의 정보센터가 세워졌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관리는 물론 책임을 맡아 새로운 정보센터의 구축작업을 하는 담당자도 '정보센터'는 문헌정보학계의 몫이 아닌 컴퓨터학계의 몫으로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계는 정보센터의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³¹⁾ 어쨌든 KORDIC이 만들어지고 KRIC이 설립되었으며, 주요 포스트는 컴퓨터학계의 인물들이 점유하였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KORDIC이나 KRIC은 그렇다 치더라도, 문헌정보학자에 의하여 설립되었고 대한민국에서 '정보센터'의 元祖임을 자처하던 KINITI 조차 문헌정보학의 경영마인드를 더이상 필요로 하지 않음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을 때 (門外漢이 KINITI 원장에 취임하였을 때), 우리 학문의 실천 현상이 한없이 줄어들음을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이었을까? 어쨌든 이 기관들은 지금 타전공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소수의 문헌정보학 출신이 주로 기능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되어 있다. 문헌정보학의 실천 현상이 얼마나 왜소하며 또 왜곡되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가? 왜 문헌정보학의 실천현장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낮아지고 있는가? 왜 국외자들은 도서관의 운영과 경영이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필요로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각종 DB의 구축과 관리에 문헌정보학의 이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은 정보센터의 구축과 운영에 문헌정보학의 철학과 이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어렵사리 기업체나 관공서 혹은 연구소에 들어간 문헌정보학과 출신들은 자료실 배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정보시대에 왜 조직의 정보유통에 있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그들의 커리어는 자료실장에서 마감해야 하는 것이며, 이 땅에서 공식적인 학문교육이 시작된지 40년도 훨씬 넘었건만 문헌정보학과 출신 최고경영자나 관리자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왜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아직도 9급 말단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각종 고시는 다 있는데 사서고시는 없는 것일까? 왜 사서출신 중에는 1급이나 2급 혹은 그 이상의 고급공무원은 없는 것일까?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사회 각분야에서 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박사급 공무원을 특채하고 있는데, 왜 문헌정보학 박사는 특채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걸까?

벌거벗겨 놓은 우리 현장의 실상이다. 이렇듯 편협되고 전근대적인 학문의 실천현장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문헌정보학의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 동안 우리 학문의 현장성이 이렇듯 열악한 것을 제도의 탓으로 돌렸고 법률의 탓

31)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대표적 단체들이 국가단위의 신설 정보센터의 계획단계에서 배제된 후, 들러리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해프닝에 대해서는 여기서 굳이 논하지 않겠다.

으로 돌렸고 문화의 탓으로 돌렸고 사서의 책임의식 부재의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피폐의 과정에서 우리 문헌정보학자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자아반성은 커녕 인정하는 것조차 인색하였다. 나는 우리 학문의 실천 현장이 지금처럼 낙후된데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땅의 문헌정보학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문화가 불모인 땅에 학문의 씨앗을 뿌려놓고 학문의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확대에 몰두하여 왔으며³²⁾, 현장의 개혁보다는 학문을 한담시고 현장을 앞다투어 떠난 우리 문헌정보학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의 건강성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한 조직의 번영은 무엇이 만들어내는가?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의 문제이다. 중산층이 견고한 사회는 더욱 건강해지고, 능력있는 중간간부층이 두터운 조직은 번성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우리 문헌정보학의 현장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던 도서관은 어떠한가? 우리의 도서관에는 자질을 갖춘 능력있는 중견 간부가 얼마나 존재하는가?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학문의 이론을 현장에서 실현하며 후배사서의 교육을 담당하면서 현장을 가꾸어온 중견 간부들이 우리의 도서관에는 얼마나 존재하는가?

‘전문인’으로서의 기쁨은 만들어진다. 신출내기 문헌정보학과 졸업생이 전문적인 사서로서 홀로 서려면 이들을 이끌어줄 능력있는 선배들의 역할은 필수적이다.³³⁾ 문제는 우리의 도서관에는 능력있는 선배 사서들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 불모의 땅에 도서관 문화의 씨를 뿌리고 ‘도서관의 현대화’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그래서 지금 40여년이 흐른 뒤에는 (우리가 그렇듯 우기고 주장하지 않았어도) 여러 관종의 도서관에서 책임자인 관장의 자리에 올랐거나 아니면 최소한 정리과장이든 열람과장이든 수서과장이든 도서관을 움직이는 핵심적인 포스트에 올랐을 우리의 도서관학과 출신 선배 사서들중 많은 이들이 비련없이 도서관을 떠났다. 그들이 하던 업무를 누가 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이 1세대 혹은 2세대 사서들 중 여러 주역들이 도서관 현장을 떠났고, 그들의 빈자리는 대부분 도서관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타직종의 혹은

32) 특히, 학과의 무차별적인 설립과 사서의 대량 양산을 위한 사설학원(사서교육원)의 설치를 방조하거나 심지어 협조하는 행태를 보여오지 않았던가!

33) ‘도서관의 나라’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혜택을 입었고 그 나라의 도서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나는, 미국의 도서관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 ‘중견’사서들이 전문분야마다 그들을 형성하고 있었다. 생각해 보라! 대학원 석사과정이라고 하지만 학교에 따라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반 정도의 시간을 학습하는데 그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이론을 배우리라 생각하는가? 미국의 사서는 도서관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신출내기 졸업생이 자질을 갖춘 훌륭한 선배사서의 밑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의 ‘전문사서’가 되기 위한 공식적인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비로소 도서관이라는 조직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신출내기가 홀로 서기까지 계속되는 선배사서들의 충고와 질책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명실공히 ‘전문사서’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임시직(기능직을 포함한) 직원들에 의해서 채워졌다. 그 결과는? 그 결과가 지금의 우리 도서관이다. 비전문직 관장이 지배하고 기능직 출신 간부가 운영하는 그러나 新교육을 받은 신출내기 사서들은 고민하고 회의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도서관이다. 어느 학자의 비유처럼, 더 이상 사회와 교육현장의 심장이기를 포기하고 맹장(가장 비전문적인 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우리의 도서관이다.

그들은 도서관만 버려두고 떠났는가? 아니었다. 앞서 이야기하였던 KORDIC이나 KRIC을 컴퓨터라는 도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결국은 KINITI마저 비전 공자에게 넘겨준 것도 이들이었다. 주지하다시피, KINITI의 전신인 KORSTIC을 설립하고 운영에 참여하였던 핵심 멤버들은 문헌정보학도들이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들은 씨앗을 뿌려만 놓았지 그 줄기가 단단해져 웬만한 비바람은 스스로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이 만든 기관을 돌보지 않고 떠나 버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그들로 하여금 도서관이든 정보센터든 미련없이 현장을 박차고 떠나게 한 것은 마구 신설되던 도서관학과의 '교수' 자리였다. 이 작은 땅위에 40개나 되는 도서관학과의 생겨났을 때, 도서관현장을 움직이며 신출내기 사서들을 '전문인'으로 키워내야 할 1세대와 2세대의 핵심 인력들이 후학을 양성한다는 명분을 업고 현장을 버렸다. 학문을 한답시고 현장을 버렸는데, 그렇다면 학문은 진보하였는가? 이제 한국의 문헌정보학은 홀로서도 될 정도로 건강해 졌는가? 그러나 앞서 우리는 우리 학문의 비정체성을 염려하였고 비과학성을 아쉬워했으며 영세성과 폐쇄성을 개탄하였고 종속성을 우려하였다. 이렇듯, 벌써 40세가 넘는 우리의 학문은 후천성 정신미숙증을 앓고 있고 그 실천 현장은 지체부자유의 결함을 안고 살고 있다. 상황이 이렇진대, 나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사회의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문을 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할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을 자신있게 권하겠는가?

5. 지금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부터 1년여전 학부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최소전공학점제가 실시되던 무렵,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한 교수는 1학년에 재학중인 4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공식적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2학년 진급시 제2전공을 선택한다면, 어떤 전공을 선택하겠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간단한 조사였다. 그러나 그 설문조사의 결과는 몇몇 비인기학과(?)의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충격을 입은 학과는 바로 문헌정보학과이었다. 이전까지 문헌정보학과는 부산대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7개의 학과³⁴⁾중에서 6번째로 설립된 신설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신

입생의 성적이나 입시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볼 때 늘 중위권은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은 학부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치명타는 피해갈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접했을 때, 그 충격은 실로 컸다.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400여명의 학생중에서 문헌정보학을 제2전공으로 선택하겠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당시 나는 바짝 긴장하여 반드시 그 원인을 파악해 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여리 여긴상 공식적인 확인은 어려웠지만 학생들의 입을 통해 밝혀진 가장 큰 이유는 '학문의 성격이 모호하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었다.

'학문의 성격이 모호하다'는 말은 학문의 본질이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앞서 파악했던대로 학문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기초학문인지 응용학문인지, 인문사회과학적 성격이 강한지 과학기술학적 성격이 강한지, 도서관학인지 문헌학인지 서지학인지 정보학인지, 專攻하려면 어떤 소양과 자질이 요구되는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다는 말이다. 그도 그런 것이 학과 소개서를 보면 대충 무엇을 하는 학문인지 짐작이 가는데, 교과과정을 일별해 보면 용어조차 모르는 과목명이 나열되어있으니 이들의 고충을 이해할 만 하다.³⁵⁾ 용기를 내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에 등록을 하고 첫 수업에 참석해 보니 교수의 강의내용은 전문용어 투성이고 좌우를 둘러보니 모두 문헌정보학과 학생들 뿐이다. 결국 주눅든 마음을 어찌하지 못하고 수강취소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학칙초면 종종 목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모호한 학문의 정체성과 공급자 위주로 편성된 교과과정 및 과목편성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호감과 문헌정보학 교과과목에 대한 수요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비전이 없다"는 말은 학문의 실천 현장 즉 직업에 비전이 없다는 말을 의미한다. 학과소개란에는 도서관을 비롯한 자료실이나 조사부 등으로 진출한다고 쓰여있으나, 문헌정보학과에 재학중인 친구에게 물어보니 주로 사서가 되어 도서관으로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사서'라는 말 자체에도 익숙하지 않지만 웬지 사서에 대한 이미지가 지나 도서관이 주는 이미지가 그다지 상큼하지 못하다. 무엇보다도 학문을 전공하고 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고, 그 직업

34)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1998년 현재, 문헌정보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정치외교학과로 구성되어 있다.

35) 자료조직, 장서개발론, 참고조사업무, 독서지도, 주제분석법, 연속간행물 관리, 색인초록법, 향토자료 등등. 제목만 보아 가지곤 도무지 어떤 과목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사실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과목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전공과목에 비해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우리끼리만 쓰는 용어)로 점철되어 있다. 게다가 과목명에서는 '기능(skill)'이나 '기술(technique)위주의 과목이라는 분위기가 짙게 배어있다. 최근에 와서 학교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질적인 느낌은 여전하다.

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목표가 선명하지 않다. '출세'에 관심이 많은 패기찬 남학생들은 특히 이 두 가지 면에서 고개를 젓는다. '그게 남자가 할 일이나'며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바닥에 있는 주위 사람들의 편견도 따갑게 느껴진다. 하긴, 졸업반이 되어 사회의 냉엄한 현실이 피부에 느껴질 때쯤에는 도서관 사서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지만, 안정보다는 '출세' 논리가 사고를 지배하기 마련인 20세도 안된 어린 학생들에게 20-30년후에 '잘해야 공공도서관의 관장이나 정보자료실의 실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미끼는 그다지 큰 유혹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학문의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직업선택의 편협성과 직업이 주는 비전의 결여는 문헌정보학에 대한 교육수요의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또다른 원인이었다.

이에 이번에는, 교육수요자의 입장이 되어 현단계 한국 문헌정보학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 보았다. 교육 수요자가 없다는 말은 학과의 종말을 의미하고 나아가 학문의 실종을 의미한다. 다소 극단적인 표현같지만 요즘과 같이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에서의 효용성만을 중요시하는 풍토에서는 이 말은 절대 과장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학문의 중요성에 대해 아무리 외쳐되도, 칼자루를 권 측이 문헌정보학 교육의 효용성을 의심할 정도로 교육수요가 감소할 때 우리는 학문의 존폐를 염려하는 상황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이 글의 시작에서 나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였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지금 벌이고있는 논쟁도 결국은 '교육수요'의 감퇴에서 비롯된 것임을 간파해야 한다. 그들의 경우 도서관이라는 현장의 인프라가 그렇게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사서라는 직업이 주는 비전의 영세성은 문헌정보학에 대한 교육수요의 감퇴를 초래하고 있으며 결국은 많은 library school의 폐교를 강제하거나 자구책의 마련 (결국, 학교의 명칭과 교육내용의 개혁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추구)을 강요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바다 건너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앞서 논의한대로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씨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한국 문헌정보학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제는 상처의치유를 위한 처방을 내리고 그 처방에 따른 실천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남았다. 나는 이 글에서 구체적인 실천전략까지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이 글의 서론 부분에서도 밝혔듯이 어차피 이 작업은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학계가 거학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글에서 내가 제기한 문제점과 내린 진단이 정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고백하건대, 나 또한 아집과 편견에 찌들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왕에 내린 진단이니만큼 나름대로의 처방은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 처방 또한 물론 논쟁의 대상이 되겠지만... 나는 한국 문헌정보학계가 우리 학문의 학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인 발전 방안과 단기적인 치유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중장기 방안의 기초는 우리 학문의 전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한국 문헌정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에 주어져야 한다.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있어 핵심적 키워드는 ‘지식과 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우리 학문의 목적은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제현상을 구명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이론화”하는데 두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연구영역이나 대상의 확대 그리고 연구방법의 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핵심은 ‘제현상과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는데 있어 관점의 변화’를 의미한다. 가령, 우리 학문의 전통적 화두였던 도서관이나 정보센터는 지식과 정보의 다양한 유통 현상중에 하나로써 다루어져야지 지금처럼 문제인식과 사고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래 前 학계의 한 원로가 처방을 내린대로, 우리는 (거시적이며 동시에 미시적 관점에서) 지식과 정보의 속성을 연구하여야 하며, 유통과정을 연구하여야 하며, 처리방법을 연구하여야 하며, 봉사방법을 연구하여야 한다.³⁶⁾ 여기에 더하여, 우리는 지식과 정보의 철학과 역사를 연구하여야 하며, 지식과 정보를 둘러싼 사회문화현상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는 우리의 사회에 기반한 토착적인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 연구결과를 주변의 다른 학문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학문의 학문성과 현장성은 제고되고, 장차에는 한국 문헌정보학이 “우리 사회의 심장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학문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한편, 현재의 위기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 즉, 단기적 방안의 기초는 우리 학문에 대한 교육수요의 창출에 두어져야 한다. 나는 이 단기적 방안에 있어 핵심적 과제는 ‘학문의 영세성 극복’과 ‘학과에 대한 이미지 개선’이라고 보고 있다. 먼저, 우리 학문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학문의 미래는 사람에 달려있다. 따라서 학문의 영세성 극복을 위한 방안의 핵심은 기존 인재의 효율적인 활용과 새로운 인재의 적극적인 유입에 달려있다. 기존 인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비효율적인 학회구조와 학과구조를 개혁하여야만 한다. 가령, 170명밖에 안되는 현직교수들이 4개의 학회에 중복적으로 속해 있고 사업도 중복적으로 수행하며 협조보다는 견제에 몰두하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 학문의 영세성 극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학회의 통합은 절실하며 이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문헌정보학자들은 우리 학문 성격의 종합성(multidisciplinary)을 고려하여 자신의 세부전공과 관련있는 여타 학회 (가령, 정

36) 최성진, 앞의 글. p. 110-112.

보과학회나 정책학회 등)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학문적 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우리분야의 연구성과를 타분야에 전파하고 타분야의 연구성과를 우리 분야에 소개하는 일에 적극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또한, 170명밖에 안되는 현직교수들이 40개의 학교로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영세적인 구조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밥그릇'과 관련한 매우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연구와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1998년 6월 현재 불고있는 外風으로 보아 타의에 의한 구조조정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나, 학계차원에서도 현존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대안의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가령, 여러 대학간에 물리적인 학과의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지역단위로 강의를 서로 개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은 그나마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학문의 영세성 극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력의 유입이 절대로 필요하다. 조직도 학문도 발전을 위해서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혈통이 같은 사람들을 자체적으로 길러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긴급 수혈도 필요하고 입양(?)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우리 학문처럼 종합학문의 성격이 농후한 경우 다양한 분야로부터 인재를 입양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의 영세성 극복의 차원이 아니라 학문의 도약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이 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170명밖에 안되는 한국 문헌정보학자들중 소위 정통파(?)와 입양파(?)의 우리 학문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는 과정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다.³⁷⁾ 이 입양의 문제는 단지 학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 현장에서든 입양은 절실히 필요하다. 문헌정보학 출신이든 비문헌정보학 출신이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고급인력을 도서관을 비롯한 우리 학문의 현장으로 입양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제도적이고 법률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 거학적으로 달려들어, 우리의 현장에 유능한 일꾼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특히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고급인력들을 학계 주변에 방치하기보다는 현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사자들 또한 과거 학문선배들이 범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문과 현장을 위해 무엇이 더 시급한지를 꼼꼼히 생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局外者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학문에 대한 이미지 (특히 편견과 오해)를 개선하는 일 또한 한국 문헌정보학이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살아 남으려면 서둘러야 할 과제이다. 목적은 물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우리 학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이며, 이는 교육수요의 창출에 있어 양적 측면 못지 않게 중요한 질적 측면을 고려한 대책이다.

37) 이 글에서 분석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단, 소위 입양파의 노력으로 우리 학문의 학문성이 제고되어온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우리 학문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학문의 간판을 바꾸는 일이라 생각한다. 물론 학계의 중지를 모아 도서관학과에서 문헌정보학과로 학문의 명칭이 바뀔지 얼마되지도 않은 현시점에서 또다시 學名의 개칭을 논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음을 사실이다. 그러나 기성세대인 우리의 의식변화보다는 미래 학문세대의 의식 변화에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다. 교육은 어차피 철저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원칙에서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현재의 '문헌정보학'이라는 學名을 통해 미래의 교육수요자들이 우리 학문의 본질과 목적을 이해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면 그래서 부차적인 설명이 늘 필요하다면, 이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 앞서도 여러 사례를 인용하였지만, 문제의 핵심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학문의 기성세대에게는 물론이고 미래세대에게까지 우리는 우리 학문의 본질과 목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부차적인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데 있다. 이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거학적 논의가 시급히 요청된다.

學名의 개정과 더불어 교과과정의 개편이 따라야 한다. 교과과정의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선행 연구가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들은 많이 제기되었지만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교육구조 자체의 개혁에 대한 제언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여기서 나의 생각의 일단을 밝혀보고자 한다. 나는 우리 나라의 문헌정보학은 궁극적으로는 대학원 중심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주제배경을 가진 학부생들을 대학원 과정으로 끌어들이 교육시키는 미국의 방식이 바람직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 현실이 미국의 것과 다른 상황에서³⁸⁾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원 중심 교육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개혁의 기본 방향은 학부의 교육내용과 대학원의 교육내용을 이원화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지식과 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응용성이 요구되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가령, 관종별 도서관의 경영방법이라든가 혹은 특정 기관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조직방법 등에 대한 지식)은 대학원 수준에서 교육하는 교육내용의 이원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 또한 거학적인 논의가 시급히 요청된다.

교과과정의 개편과 관련한 또하나의 제언은 교과목의 편성과 과목명칭의 개정이다. 나는 지금이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명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전공 학생이 아닌 타학과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호기심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우리가 개설하는 강좌를 수강하고 우리

38)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서직의 자격요건도 대학원 석사과정 이상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전문대학을 졸업하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건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하건 사서가 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지 않는가!

학문의 본질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기능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미국의 LIS programs(문헌정보대학원 과정)에서 그것도 과거에나 사용하던 교과목의 명칭을 그대로 우리 말로 옮겨 학부에서 사용하여 왔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교과목 명칭은 학부수준에서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전문적이며 또한 기관(도서관)중심적이어서 다른 학문분야의 학생들에게 배타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³⁹⁾ 나는 또한 우리 학문의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필수 전공과목들은 통합 학계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교과목의 명칭은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⁴⁰⁾ 동일한 교과목을 지금처럼 학교마다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표준화'를 중요한 연구테마로 삼고 있는 문헌정보학계가 '선도'해야 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제 장황했던 이야기의 끝자락을 붙잡고 다시 한번 제언한다. 이 글에서 제기된 여러 처방들, 특히, 학명의 개칭과 교육구조의 개편 그리고 교과목의 선정 및 명칭변경과 관련하여서는 학계와 현장의 인력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주변 형편을 고려한다면, 가능하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세미나 혹은 포럼'을 개최하고 그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에 대한 거학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움직임이 지금과 같은 <전환기>에 우리 학문이 생존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보가 아닐까 한다.

39) 가령, 현재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중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명칭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정보조사제공론, 성인자료이용론, 특수자료조직론, 공공도서관운영론, 도서관자동화, 문헌통정, 동양전적, 목록론, 분류론, 색인 및 시소러스, 자료선택론, 자연과학서지 등. 문헌정보학도의 입장이 아닌 국외자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라. 심지어,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한지 2-3년쯤 된 학생들 중에도 위에 열거한 과목명을 듣고는 그 과목이 무엇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다. 하물며, 타학과 학생들이나 미래학문세대의 입장에서야!

40) 앞서 언급한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가령, ①문헌정보학입문(연세대)/ 문헌정보학원론(이화여대)/정보학개론 & 서지학개론(성균관대); ②정보조직론: 분류 & 정보조직론: 목록(연세대)/분류론 & 목록론(이화여대)/자료조직법 I & II(성균관대); ③ 장서구성론(연세대)/정보자원관리(이화여대)/자료선택론(성균관대); ④도서관·정보센터경영원론(연세대)/도서관정보센터경영(이화여대)/도서관경영론(성균관대); ⑤과학기술정보(연세대)/과학기술정보원(이화여대)/자연과학서지(성균관대); ⑥색인 및 시소러스(연세대)/색인초록법(이화여대)/색인및초록법(성균관대); ⑦정보조사제공론(연세대)/정보봉사론(이화여대)/참고봉사론(성균관대). 기억하자! 우리는 지금 대학원의 특별 강좌명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학부 그것도 주로 2-3학년을 대상으로 편성된 교과목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다.

6.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매년 신학기면 '문헌정보학과 나'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신입생들과 3학년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자신이 전공할 그리고 전공하고 있는 학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의도이며, 입학하고 2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자신이 선택한 학문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지난 1993년부터 매년 반복하고 있으니 올해로 5년째이다. 그 첫해에 학생들이 제출한 몇 편의 리포트를 읽고나서 내가 받았던 충격은 문헌정보학자로서의 길을 계속해서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야 할 정도로 큰 것이었다. 當時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었던 글귀는 지금도 생생하다. 몇몇 3학년 학생들이 '詐欺'라는 표현을 썼다. '문헌정보학과'라고 학과 명칭을 바꾼 것은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모집요강'의 내용도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결과 속이 다른 '교과과정'도 '사기'라는 이야기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고급 '사기꾼'이 되었다. 불행히도 유사한 내용의 문구가 5년이 흐른 지금도 학생들이 제출하는 리포트에는 여전히 포함되어 있다. 나는 또한번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또한번의 '사기'일지도 모르는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학문의 발전을 위한 제언이랍시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러나 참담한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고해성사를 마치고 난 사람처럼 마음은 상당히 개운하다.

참 고 문 헌

1. 구본영 (1993). "한국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개선방안." 문헌정보학논총 리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55-97.
2. _____ (1996). "한국 문헌정보학의 학부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3-50.
3. 고영만 (1993). "포스트모던 사회의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포스트모던의 정보학 고찰."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579-603.
4. 김정근 (1995). 한국의 대학도서관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5. _____ (1996). 학술연구에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서울: 도서출판 한울.
6. 김태승 (1993). "학문의 신실증주의적 신드롬을 경계함." 도서관문화 34(5): 2.
7. 남태우·정준민 (1995). "정보사회를 대비한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산학협동 및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8: 193-245.

8. 리재철 (1990). "문헌정보학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7(2): 3-34.
9. 박홍석 (1997).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역할 및 위치: 이용자 연구 중심의 문헌정보학," 도서관학논집 26: 504-538.
10.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4).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 10주년 기념 자료모음.
11. 이수상 (1998). 한국문헌정보학의 현단계. 서울: 도서출판 한울.
12. 이순재 (1990). "한국 도서관학·정보학 연구의 확대를 위한 소고." 도서관문화 31(6): 81-292.
13. 정동렬 (1993). "연구방법론 분석에 의한 문헌정보학 이론의 개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23-41.
14. 정영미 (1993). "문헌정보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내용분석적 연구." 문헌정보학논총 리재철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27-54.
15. 최성진 (1993). "한국 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81-112.
16. 한국정보관리학회 (1995).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17. 한국문헌정보학회 (1996). 1996년도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정기총회 및 하계세미나 발표논문요지. 대전: 한국문헌정보학회.
18. Auld, L. (1990). "Seven Imperatives for Library Education." *Library Journal* 115 (May 1, 1990): 55-59.
19. Birdsall, W. (1994). *The Myth of the Electronic Library*. Westport, CT: Greenwood.
20. Bell, D.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NY: Basic Books.
21. Borko, H. (1984).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JASIS* 39: 318-321.
22. Buckland, M. (1992). *Redesigning Library Services: A Manifesto*. Chicago: ALA.
23. Bunge, C. (1992). "The Philosophies and Objectives of Graduate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6 (1/2): 13-18.
24. Ceppos, K. (1992). "Innovation and Survival in School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3(4): 277-283.
25. "Dean's List: 10 school Heads Debate the Future of Library Education." *Library Journal* 119 (April, 1994). 60-64.

26. Drucker, P. (1968). *The Age of Discontinuity: Guidelines to our Changing Society*. New York, NY: Harper & Row.
27. "Editorial: educate library leaders, don't beg for academic respect - Confronting Cronin's Complaint." *Library Journal* 120 (March 15 1995): 6.
28. Harris, M. & S. Hannah. (1993). *Into the Future: the Foundation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in the Post-industrial Era*. Norwood, NJ: Ablex.
29. Crawford, W. & M. Gorman. (1995).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 Chicago: ALA.
29. Heilprin, L. ed. (1985). *Toward Foundations of Information Science*. White Plains, NY: Knowledge Industry Publications.
30. "Keeping the Library in Library Education," *American Libraries* 29 (March 1998): 59-63.
31. Lancaster, F. (1982). *Libraries and Librarians in the Age of Electronics*. Arlington, VA: Information Resources Press.
32. _____. (1985). "The Paperless Society Revisited." *American Libraries* 16 (Dec. 1985): 553-555.
33. Lester, J. (1993). "Education in Response to Chan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8 (3/4): 39-54.
34. Neill, S. (1992). *Dilemmas in the Study of Information: Exploring the Boundaries of Information Science*. New York, NY: Greenwood Press.
35. Paris, M. (1986). *Library School Closings: Four Case Studies*.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36. Vickery, B. & A. Vickery. (1987). *Information Science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Butterworths.
37. Vondran, R. (1989). "Rethinking Library Education in the Information Age."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1(3/4): 27-36.
38. Wilson, P. (1981). "Shall we change our name: Taking the Library out of Library Education." *American Libraries* 12 (June 1981): 321-325.
39. [Http://www.ala.org/alaorg/oa/uslis.html](http://www.ala.org/alaorg/oa/uslis.html).